

전주 밤 마실 빛의 예술과 먹거리가 있는 낭만적인 밤

전주가 밤에 더욱 화사하게 피어나고 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면 한옥마을은 운치 있는 낭만의 옷으로 갈아입고, 남부시장은 갓가지 먹거리로 군침을 돌게 한다. 가족, 연인과 함께 산책하기 좋은 봄날 밤에 낭만을 찾아 마실을 나가봤다.

글 임동근 기자·사진 임귀주





5 한옥마을과 서학동을 잇는 남천교 위에 세워진 청연루 야경. 6 은은하게 불을 밝힌 전동성당. 7 미디어 파사드 '풍남문 빛의 옷을 입다' 공연이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다.

1 오목대 아래 산책로에서 바라본 전주한옥마을 전경. 2 빗꽃 화사한 오목대 야경. 3, 4 한복을 입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는 젊은 관광객들.

고요하고 정겨운 한옥마을 해님이

전주한옥마을 동쪽 언덕에 있는 오목대 아래 산책로에는 연인들과 친구들이 해 저무는 한옥마을 풍광을 감상하기 위해 삼삼오오 모여들고 있었다. 해가 저물고 불그스레하던 하늘이 푸른빛으로 바뀌면서 가지런하게 선이 굵던 기와지붕은 실루엣만 남기고, 기와지붕 사이사이로 은은한 불빛이 퍼지며 고풍스러운 풍광을 선사했다. 사람들은 산책로를 걷거나 오목대 마루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다.

오목대 아래 산책로에서 해님을 감상하던 태국인 핏차야 릿(23·여)씨는 “해 질 녘 한옥마을 풍광이 태국과 달리 무척 아름답고 조용해서 좋다”며 “이야기로 들던 남부시장 야시장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목대를 내려가 한옥마을로 접어들었다. ‘태조로’ 양쪽으로 늘어선 한옥들은 환하게 불을 밝혀 낮보다 더 고풍스러우면서 화사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거리에는 밤의 즐거움을 찾아 나선 이들이 수없이 오고 간다. 특히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젊은이들의 모습이 이채롭다. 위엄 있는 왕자와 왕비가 된 듯, 의젓한 양반과 수줍은 규수가 된 듯 발걸음을 옮긴다.

초코파이, 만두빵과 단팥빵, ‘문(문어)꼬치’ 등을 파는 상점에는 길게 줄을 서서 빨리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공연 즐기고 빛의 예술 감상하고

조선 태조의 영정이 봉안된 경기전(慶基殿)은 조명이 꺼져 어둠에 묻혀 있었다. 하지만 담벼락 바깥에서는 밤의 여흥을 돋우는 공연이 진행돼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었다. 기타 선율에 맞춰 감미로운 노래가 밤공기를 채우고, 벤치에 웅기증기 모여 앉은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노래를 감상한다. 공연 장소 옆 화사한 꽃으로 꾸며진 산책로에서는 사극의 주인공이 된 듯 선남선녀들이 다양한 포즈로 사진을 찍는다.

한복 차림으로 친구들과 공연을 감상하던 대학생 신유찬(20)군은 “한복을 입고 한옥마을을 돌아다니는 것은 흔치 않은 특별한 경험”이라며 “길거리 음식이 다양하고, 음악 공연도 있어 무척 재미있다”고 말했다.

은은한 조명 속에서 성스러운 분위기를 더하는 전동성당을 지나 길을 건너면 옛 전주읍성의 남문인 풍남문(豊南門)이다. 풍남문에서는 매일 저녁 화려한 빛의 공연이 진행된다. 9시가 되자 너비 47m, 높이 16.2m의 풍남문을 스크린 삼아 빛으로 만든 문양이 번쩍거린다. 빛은 평화로운 한옥마을, 새와 물고기가 노니는 풍경을 만들어내고, 용상에 오르는 태조 이성계를 형상화한다. 또 화려한 부채춤과 비보잉, 발레 공연이 이어진다. 오는 7월 29일까지 목·금요일 밤 9시와 9시 30분에 각각 10분간 진행되는 미디어 파사드 ‘풍남문 빛의 옷을 입다’ 공연은 전주의 밤을 색다르게 하는 볼거리가 되고 있다.



